

“2011 후쿠시마 원전사고 여전히 진행형”

서경석 도쿄게이자이다 교수 ‘폭력과 기억의 싸움’ 강연

“주민들, 방사능 피폭 위험에 귀향 엄두 못내”

“한국 물론 전세계 영향 불구 역시도 무신경”



“3년 전 가족들과 식사를 하다가 방송 뉴스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폭발 소식을 들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큰 일이 터졌구나 생각하면서도 그게 현실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습다. 사고현장에 가서 직접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생각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무서움을 실감하지 못하는 일본인들이 여전히 많습다. 방사능이 일본은 물론 한국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위험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광주드라마센터(센터장 강용주)가 주관한 ‘2014 치유의 인문학’ 네 번째 강연이 12월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열렸다. ‘폭력과 기억의 싸움’을 주제로 네 번째 강연에 초청된 도쿄게이자이다(經濟)대 서경석(64) 교수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이재민들의 고통을 전하며, 이러한 비극이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951년 일본 교토에서 태어난 서 교수는 일본 리츠메이칸대 서공 교수와 인권운동가 서준식씨의 동생이다. 그는 1971년 와세다대에 재학 중 한국에서 공부하던 두 형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자, 이들의 석방과 한국 민주화 운동을 위해 1990년까지 활동했다.

서 교수는 민주주의 실현과 일본 내 재일교포 등 소수자들의 인권에 대해 글을 써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아 지난 2012년 제6회 ‘후광 김대중 학술상’을 수상했다. 전담대가 2006년 제정한 후광 김대중 학술상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기여한 김대중 전 대통령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역대 수상자는 리영희 교수를 비롯해 브루스 커밍스 시가고대 석좌교수,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와다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강민길 고려대 명예교수 등이다.

이날 강연은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

마 원전 사고 3개월 후 그가 직접 현장을 찾아 촬영한 ‘후쿠시마를 걸어서’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시작했다. 영상 속에 비친 후쿠시마 인근 마을은 한국 시골마을을 풍경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자동차로 한참 달려도 인적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 대안임에도 스산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서 교수는 당시 논에서 작업 중인 농부를 우연히 만난 이야기를 전했다. 논에서 풀을 베고 있던 농부는 방사능 피폭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40년 넘게 농사를 지었던 땅에 잠잠한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억장이 무너질 것만 같아 나왔다고 하소연했다. 농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방사능도 무섭지만 이로 인해 삶의 터전을 모두 잃고, 마을 공동체가 파괴돼 버린 것이 더 아프다고 토로했다.

서 교수는 현재 후쿠시마 인근 주민들이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방사능 피폭 위험 때문에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그뿐만 아니라 방사능이 두렵지만 생계문제 때문에 고향을 떠나지 못하는 부모들과 수백km 떨어진 곳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서로 생이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해버린 후쿠시마 사고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후쿠시마 원전이 통제되고 있다는 발표를 주민들은 믿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러한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참사로 지난 3년간 수많은 피해자가 속출했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원전사고는 한번 터지면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일본인들이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글·사진=양세열기자 hot@



고 박인천 금호그룹 창업회장의 30주기 추모식에서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박홍석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박준영 전남도지사,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강운태 광주시장, 박선홍 광주상공회의소 전 부회장, 김동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오른쪽부터) 등이 고인을 기리며 묵념을 하고 있다. <금호아시아나 제공>

박인천 금호 창업회장 30주기 추모식

정·재계, 문화계 인사 등 1000여명 참석

금호그룹 창업주인 고(故) 박인천 회장의 30주기 추모식이 16일 광주시 북구 금호고등학교(축조학원) 죽호관에서 열렸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전현직 임직원과 죽호학원 산하 학생, 유가족, 정계, 재계, 문화계 인사 등 1000여명의 추모객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추모식은 금호아시아나그룹 이 후원중인 피아니스트 김민준씨 등의 추모공연과 고 박 회장의 일대기를 다룬 8분 가량의 추모 영상 상영 순으로 진행됐다.

유가족을 대표해 인사말을 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선전께서는 육영·장학사공헌만 아니라, 문화, 예술, 학문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몸소 실천하셨다”며 “앞으로도 금호 아시아나그룹은 지역 사회 및 국가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랄 것”이라고 말했다.

강운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도지사, 박홍석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등은 추모사를 통해 고인의 뜻을 기렸다.

강운태 시장은 “고 박인천 회장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을 1대에서 8대까지 역임하며 지역경제 발전에 신명을 다 바친 기업인”이라며 “지역경제의 개척자이자 선

구자였던 박 회장은 남다른 열정과 집념, 철저한 기업윤리와 사람 사이의 신뢰와 의리를 강조한 한국 경제계의 큰 귀감이었다”고 말했다.

박준영 지사는 “고 박 회장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지역 사랑이 있었고, 거미줄처럼 도민들의 손발이 되고자 했던 백년대계를 위한 구상이 있었다”며 “작은 택시회사에서 타이어와 건설, 화학, 하늘을 나는 항공에 이르기까지 주력사업을 키우는 실천력과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을 가졌던 분”이라고 전했다.

박홍석 회장은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과 타이어산업, 육상 및 항공운송사업, 건설사업 등 많은 분야에서 고 박인천 회장은 우리가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닦고 견인한 선구자였다”며 “투철한 기업정신의 소유자였던 박 회장은 무엇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와 의리를 무척이나 강조했다. 이것이 기억난다”고 말했다.

고 박인천 회장은 해방 직후인 1946년 46세의 나이로 택시 두 대를 갖고 창업, 육상운송과 항공운송으로 사업을 확대하며 우리나라 운송업의 초석을 다진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임동룡기자 exian@

호남대공자학원, 中 최고 마술·변검술사 초청 공연



호남대 말랄라스쿨과 호남대공자학원은 최근 광주 대인예술시장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중국 최고의 마술 및 변검술사 초청 공연을 가졌다. <호남대 제공>

마스터브레인 여수평생교육원, 체험박람회



마스터브레인 여수평생교육원(원장 서영화)이 주최한 ‘시민과 함께하는 평생교육문화 체험박람회’가 최근 여수시청 여수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여수평생교육원 제공>

보혜 CSR본부, 보훈가족 족욕봉사 펼치



보혜(대표이사 유철근) CSR본부 임직원 10여명은 최근 광주보훈병원을 찾아 보훈가족 환자 60여명을 대상으로 족욕봉사를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 영령들의 송고한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혜 제공>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화촉

- ▲한연택(옥과송원식당 대표)·김명숙씨 아들 상천군 맹기원·정경희씨 딸 설화양=21일(토) 낮12시 아름다운컨벤션 테파니홀(1층).
- ▲김재완(광명컨트리클럽 사무이사)·김인숙씨 차남 남용근 홍기룡(광주송원중학교 교장)·노항숙씨 장녀 자연양=21일(토) 오후 1시 아름다운컨벤션 2층 베르사체홀.
- ▲임배근·우영자씨 차남 옹호군(포스코 광양제철) 최희우(전남도 종합민원실장)·임정애씨 차녀 유선양(전주 오송중)=22일(일) 오전 11시 라페스타웨딩홀 4층 디아랑홀.

동창회

- ▲재광 순천 태산고 정기모임(회장 장진호)=17일(화) 오후 7시 광주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 열 예정입니다.
- ▲광주체육중·고 총동문체육대회(회장 김도형)=22일(일) 오전 10시 모교체육

관 010-5644-7786.

향우회

- ▲재광 해남군 향우회(회장 박삼근) 제35차 정기총회=19일(목) 오후 7시 광주 서구 농성동 상록회관 4층 010-2073-5372.

알림

- ▲광주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주간지 지 서비스(주 5일운영) 회원 정신건강상담 서비스 무료제공 및 만성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 관리(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062-233-0468.
-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상담·신고 전화 운영=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학대와 방임을 말한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아동학과 관련한 상담 및 신고전화 1577-1391은 24시간 운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아동

보조전문기관.

-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미혼부모상담 및 임양상담 24시간, 위탁가정 상담, 임양가족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임양가족 자조모임 운영 062-222-9349.
-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정신건강 및 중독 무료상담=지역 주민 누구나 매주 월요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열린마음상담센터 062-526-3370
- ▲‘금융컨설팅’ 채권·채무·재테크 무료 출장 상담=다중 채무·개인회생 및 파산 안내, 사업자 및 개인 채권 서류 검토 작성 대행, 재테크 절세 방법 상담 010-6392-4585.
- ▲가시간방방문관리사지원사업=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장, 장애인(1~3급), 중증질환자 등 타인의 도움이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가사지원 및 간병

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모집

- ▲전문문화 보존 연구회=한문·예절·다도·시조 등 우리 전통문화를 쉽게 익히고 배울 수 있는 회원 선착순 모집. 북구 중흥 3동 동사마을 맞은편 062-268-5588, 010-9440-2512.
- ▲광주물새 클럽 수영 동호회=수영 무료로 지도해주며 30세 이상, 북구 거주자 환영 011-602-2278.
- ▲씨호크 레저스포츠클럽 동호회=페라글라이더, 행글라이더, 윈드시프, 수상스키, 제트스키 등. 062-675-8722.
- ▲광주시 생활체육야구연합회 사회인 야구팀 ‘엑스칼리버’ 팀원=야구에 관심과 자질 있는 30세~40세의 사회인(특히 투수, 포수) 011-609-9943, 010-2611-7787.
- ▲맘보퓨터 실시동호회=라던댄스·살사·차차 등. 010-5136-0028.
- ▲원불교 문화센터=서예, 요가, 다도,

노래교실, 생활영어, 규방공예 등, 쌍촌동 원음방송국 062-232-7223~4.

- ▲이발기술 배우실 분 무료로 전수해 드립니다=북구 우산동 덕성이발관 062-524-0680.
- ▲한국마사회 광주지점 문화교실 무료 수강생=노래교실(화·수·오후 2시), 꽃꽂이교실(수·오후 10시), 탁구교실(수·오후 2시), 자율탁구교실(화~목·오후 10시), 영어교실(화·목·오후 4시) 062-410-

5000.

부음

- ▲차촌에서 별세 손용학·효원씨 모친 상=발인 17일(화) 무등장례식장 201호 062-515-4488.
- ▲이영애씨 별세 정효연·덕연·효순씨 모친상=발인 18일(수)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2분향소 062-231-8902.

101호故노정현 님(남/76세)		102호故노정순 님(여/90세)	
子/子婦: 노기환/정나은, 노기용/이정숙	子/子婦: 이재현, 이재현/김명숙	女/婿: 노기영/정철	女/婿: 이재민/김선영
·발인: 6월 17일	·장지: 다도선영	·발인: 6월 17일	·장지: 다도선영
·연락처: 227-4385		·연락처: 227-4386	
201호故오천례 님(여/95세)		402호故김인기 님(남/55세)	
子/子婦: 장인성/정연순, 장재관/김정순	子/子婦: 김대만	女/婿: 장에서, 장옥련	
·발인: 6월 18일		·발인: 6월 18일	
·장지: 영락공원		·장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1		·연락처: 227-4314	
孝 金호장례식장			
문의 (062)227-4000 http://www.mykumho.com			